

WBC 개막 D-2

김태균 투런포... 日 세이부 격파



2일 오전 도쿄돔에서 열린 한국대표팀과 세이부 라이온스의 연습경기 3회말 2사 1루, 김태균이 2점포를 쏘아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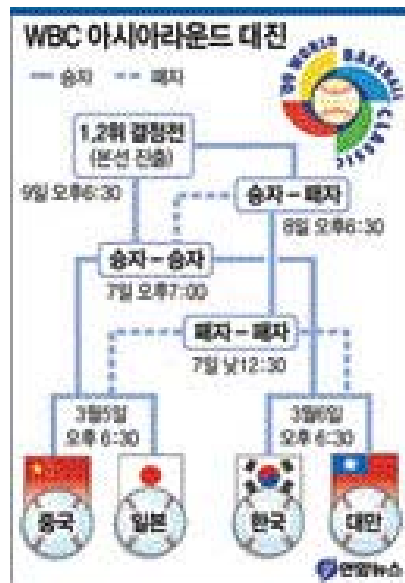
한국대표팀, 평가전서 4-2 승...김광현 3이닝 1실점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에 도전하는 야구대표팀이 주포 김태균(한화)의 투런포를 앞세워 지난해 일본프로야구 챔피언 세이부 라이온스를 꺾었다. 대표팀은 2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세이부와 평가전에서 1-1이던 3회말 2사 1루에서 터진 김태균의 장쾌한 우월월 결승 투런포에 힘입어 4-2로 이겼다. 대표팀은 한화 이글스와 다섯 차례 평가전 포함, 5승1무로 무패 행진을 달렸다. 특히 일본대표팀을 7-2로 제압한 세이부를 상대로 거둔 승리라 두 배로 값졌다. 대표팀은 1회말부터 장기인 '발아구'로 세이부 마운드를 흔들었다. 돌타자 이종욱(두산)이 좌중간 안타로 출루한 뒤 1사 후 김현수(두산) 타석에서 2루를 홈쳤고 김현수의 중전 적시타 때 거법계 홈을 밟았다. 후속 김태균의 좌전 안타로 만든 1사 1,2루에서 이대호(롯데)가 2루수 병살타를

때린 바람에 추가점에 실패한 대표팀은 3회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다. 2사 후 김현수가 세이부 우완 선발 투수 기무라 후미가즈의 바깥쪽 변화구를 잡아당겨 2루수 내야 안타를 때렸고 김태균이 바깥쪽에 딱 찬 145km짜리 직구를 그대로 밀어 때려 도쿄돔 우중간 스탠드에 꽂히는 비거리 120m짜리 대포를 터뜨렸다. 김태균이 4타수3안타, 김광현과 박기혁이 각각 4타수2안타, 3타수2안타를 때리고 득점에 앞장섰다. 그러나 마운드에 오른 투수진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일본과 경기에 선발 등판이 유력한 김광현(SK)은 봉중근-손민한(롯데,4회)에 이어 세 번째 투수로 나서, 3이닝 동안 49개를 던져 안타 5개를 맞고 1점을 허용한 뒤 8회초 무사 1루에서 정현욱(삼성)에게 바통을 넘겼다. 대표팀은 3일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영일이 출전할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팔꿈치 통증 추신수 결장...임창용은 '이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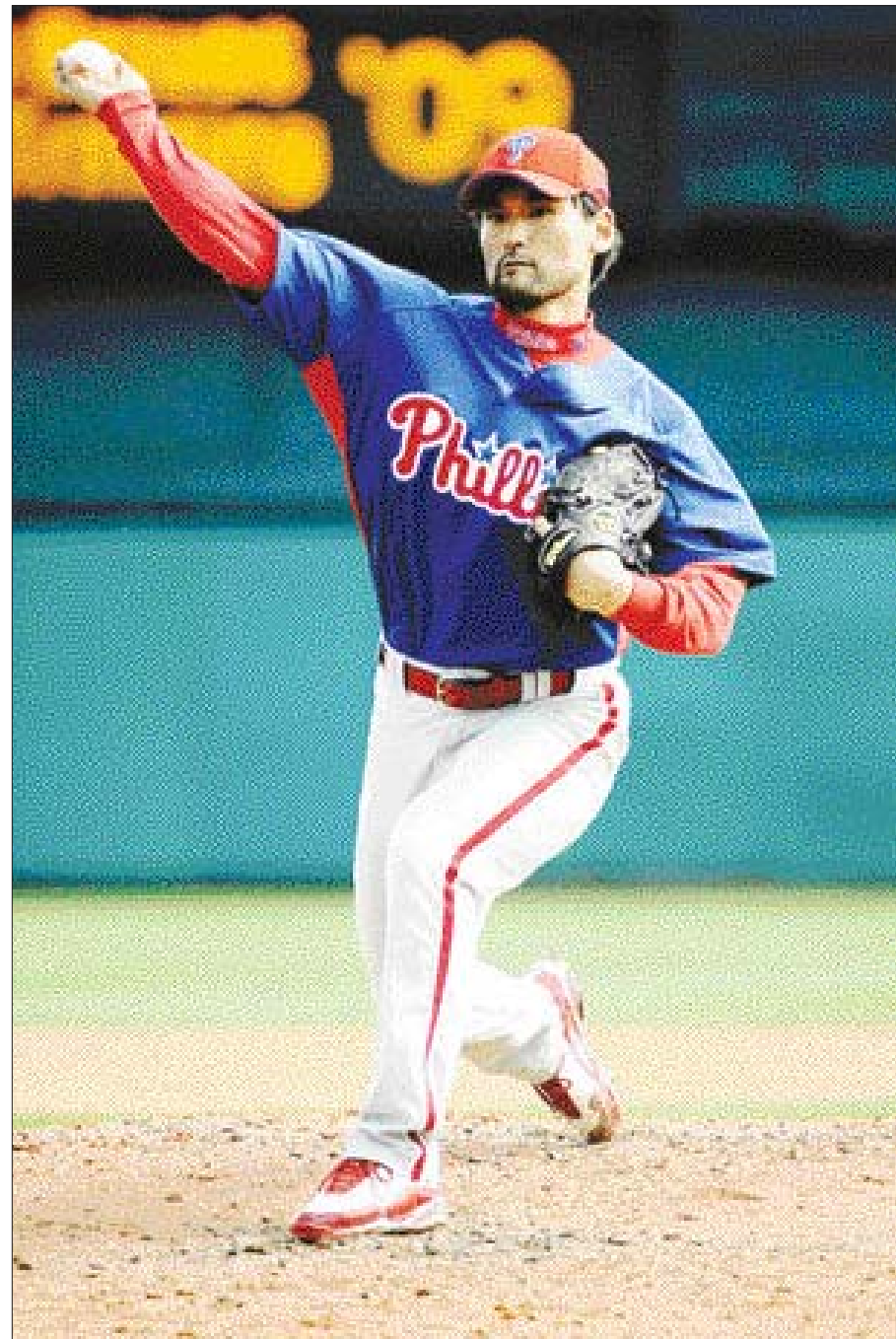
10여년간 대표팀 부동의 유격수로 활약했던 박진만이 부상으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가운데 마무리 임창용(아쿠르트)에 이어 세대교체의 주역 추신수 그리고 포수 박경완(SK)까지 줄지어 크고 작은 부상에 노출됐다. 팀내 유일한 메이저리거 추신수는 2일 도쿄돔에서 열린 세이부 라이온스와 평가전에 결장했다. 평가전 직전 타격 연습시 훈련 타구를 광경 날리던 그였기에 결장 이유를 놓고 궁금증이 일었다. 평가전 직후 김인식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시합 전 작년 수술한 팔꿈치 부위 조금 뒤틀림이 다소 안좋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경완도 6회 타석에서 자신이 친 공에 발을 맞으면서 1루에 안타를 치고 나간 뒤 대주자 고영민과 교체됐다. 지난달 28일 소속팀 연습 경기 도중 상대 타자의 타구에 오른쪽 팔꿈치를 맞은 임창용은 이날 오전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단순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아 김 감독은 다행히 한 시름을 덜게 됐다. /연합뉴스



이중탈락제란

첫 대결 결과 따라 다음 상대 정해져 2연승땀 바로 진출

4일 각각의 자존심을 건 제 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상대한 막이 오른다. 총 16개 팀이 최후의 한 자리를 놓고 결전을 펼치게 되는 이번 WBC에서는 '이중탈락(Double Elimination)'이라는 독특한 경기 방식이 도입된다. 간단히 말하면 2연승을 하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2연패를 하면 짐을 싸야하는 방식이다.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1라운드 첫 경기에서 패하더라도 2라운드에 오를 수 있는 이른바 '패자부활전'이기도 하다. 방식은 이렇다. A·B·C·D 각 조의 4개 팀은 예정된 팀과 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지난해 우승팀 일본은 A조 최약체인 중국과 경기를 갖고, 2008 베이징 올림픽 우승팀 한국은 아시아의 복병 대만과 격돌한다. 첫 대결 결과에 따라 다음 경기 상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이 각각 중국과 대만을 이긴다고 가정하면, 다음 경기는 일본-한국, 중국-대만전으로 편성된다. 승자는 승자끼리, 패자는 패자끼리 맞붙는 것이다. 두 번째 경기에서 한국이 일본에 승리하고, 대만이 중국을 누른다면 한국은 2연승으로 2라운드 진출권을 확보한다. 1승1패를 기록하게 된 일본은 역시 1승1패의 대만과 다시 한 번 맞붙어야 한다. 중국은 2연패를 했기 때문에 탈락이다. 그리고 일본이 대만을 이긴다고 한다면, 대만은 탈락이고 일본은 시드배정이 걸린 순위 결정전에서 한국과 다시 맞붙는다. 2라운드에 '이중탈락'이 적용된다. A조(중국, 대만, 일본, 한국)와 B조(호주, 쿠바, 멕시코, 남아공)의 각 조 상위 2개팀이 1조로 편성되고, C조(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베네수엘라)와 D조(도미니카공화국, 네덜란드, 파나마, 푸에르토리코)의 각 조 상위 2개팀이 2조에 포함된다. 이후 '이중탈락' 방식으로 상위 2팀이 4강에 진출하고, 4강전 승리팀 2팀이 우승 트로피를 향한 최후의 격돌을 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투수 박찬호가 2009년 3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 키시미에서 애들랜트 브레이브스와와의 춘계 훈련경기중 공을 던지고 있다.

박찬호 시범경기 첫 등판 승리투수

애들랜트전 3이닝 1실점. 미국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선발투수진 합류를 노리는 박찬호(36)가 첫 등판을 무난하게 마쳤다. 박찬호는 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키시미의 디즈니 와이드 월드 볼파크에서 열린 애들랜트 브레이브스와 시범경기에서 0-2로 뒤진 4회부터 선발 브렛 마이애스의 뒤를 이어 등판, 3이닝 동안 홈런 포함 안타 4개를 맞고 1점을 쏘았으나 그 사이 타선이 5점을 뽑아 7-3으로 이기면서 승리 투수가 됐다. 4회와 5회를 실점 없이 넘긴 박찬호는 6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타자 브라이언 맥켄에게 솔로포를 맞고 점수를 쫓았다. 13타자를 상대해 삼진 1개를 잡아냈고 땅볼과 플라이볼로 각각 4명씩 돌려세웠다.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등판한 실전에서 안정적인 내용을 선보인 박찬호는 제5선발 자리를 놓고 짧은 유망주 4명과 양보 없는 싸움을 벌였다. /연합뉴스

나상욱 시즌 세번째 '톱10'

PGA 마야코바 클래식 5위. 3라운드까지 선두에 3타차로 따라 붙어 우승까지 노렸던 나상욱은 퍼트 난조로 마크 윌슨(미국·13언더파와 267타)이 우승하는 모습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나상욱은 올 시즌 6개 대회에 출전, 세차례 톱10에 진입하는 좋은 성적을 냈다.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은 3언더파와 277타를 쳐 공동 20위에 올라 올 시즌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연합뉴스

"KOC 중심 체제로 개편" 박용성 체육회장 취임

실용주의 체육선진화를 선언한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체육인들의 축하 속에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달 19일 대의원 총회에서 제37대 대한체육회장 겸 제27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용성 회장은 2일 올림픽파크텔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장재근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의 사퇴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체육원로인 김성집 전 태릉선수촌장이 체육인 현장을 낭독했고 베이징을 립키 금메달리스트인 최민호(유도)와 윤옥희(양궁)가 꽃다발을 전달했다. 박용성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체육회를 KOC 중심체제로 개편 ▲자체주의 사업 강화를 통한 재정 기반 확충 ▲체육계 전반의 변화와 혁신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바르샤바 월드컵 대회 한국 男유도 종합 2위

남자유도 대표팀이 2009 바르샤바 월드컵 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1.5군 급이 출전한 한국은 2일(한국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중량급 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전날 66kg급 김주진(23·수원시청)과 73kg급 김원중(20·용인대)이 따낸 금메달 2개로 벨라루스(금2, 은1)에 이어 43개 참가국 가운데 2위에 올랐다. 이날 출전한 선수 가운데서는 81kg급에 출전한 이희중(19·동지고)이 3회전까지 올랐지만 아르헨티나(우크라이나)에게 유요로 져 탈락했다. 90kg급 김광호(국군체육부대)는 1회전에서 탈락했고 100kg급과 100kg 이상급 최천(한국마사회), 김성민(용인대)은 나란히 2회전에서 졌다. /연합뉴스